

생 명 샘 소 식

1. 생명샘 장로 교회의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2. 에스라 부흥 운동을 다음 주까지 합니다. 두주가 남았습니다. '믿음'에 대해 귀한 결론을 맺으며 그동안 하였던 개인 부흥 운동을 정리하려 합니다. '행하는 교회'라는 표어로 지난 2년간 말씀에 집중하며 달려 온 우리 공동체의 훈련을 개인의 것으로 잘 적용하여,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각자 모두에게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3. 11월 24일 주일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귀한 간증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4. 11월 24일 추수 감사 주일 예배 후에 각 전도회 총회가 있습니다.
5. 11월 30일 토요일 각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아프리카 목장은 12월 1일).
6. 연말 재정 모임을 알려드립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11월 26일 화요일 저녁 8시에 재정위원회(제직회 서기, 재정부)
 - 12월 3일 화요일 저녁 8시에 재정운영위원회(신.구 회장)
 - 12월 8일 주일 오후 5시에 정기 제직회로 모입니다.
 - 12월 29일 주일 예배 직후에 공동의회

11월 예배위원

안 내	조 창		김정신			
기 도	최상천(3)	최명희(10)	조은영(17)	박래석(24)		
교 회 모 임 안 내						
주일 예배	EM	교회 학교	청년회	에스라 운동	금요 제자 양육	목장 모임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2시	수요일 저녁 8시	금요일 저녁 8시	매달 네번째 토요일



생명샘 장로교회
Spring Well Presbyterian Church

행하는 교회



골로새서 2장 6-7절

- > 뿌리를 박으라
- > 세움을 받으라
- > 굳게 서라

6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주 일 예 배 2024년 11월 10일 오후 1시

묵상 기도 / 다같이

*찬송 / 구세주를 아는 이들 / 찬송가 26(신) 14(구)

*성시 교독 / 교독문 79번, 요한복음 15장 / 다같이

*신앙 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 공중 나는 새를 보라 / 찬송가 588(신) 307(구)

기도 / 최명희 권사

성경 봉독 / 히브리서 4장 9-16절 / 다같이

말씀 선포 / 정확한 기준으로 기다시는 주님 / 박화신 목사

찬송 /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 찬송가 569(신) 442(구)

교회 소식 / 다같이

*폐회송 / 날 구원하신 주 감사 / 다같이

*축복 기도 / 박화신 목사

오늘 설교 요약

1. 주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도 죽음은 찾아오지만 죽음 후에는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2. 순종한 사람만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3.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며 그 기준은 말씀입니다.
4. 우리의 연약함을 늘 동정하시며 기다리시는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의지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샘솟는 교회 springwellpc.org

2025 S. Goebbert Rd. Arlington Hts. IL 60005
목회자: 박화신 목사/KM 김대희 전도사/EM Tel) 630.673.9207

생명샘에 스라 부흥 운동

기도 참 좋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존귀한 말씀과 더불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영원하질 못할 것에 뜻을 두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 속에 있는 주님의 모습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이미 내 마음 속에 충만한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찾게 하셔서 감사와 만족함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감사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 찬송가 8(신) 9(구)

말씀 읽기 히브리서 11장 24-27절

1. 모세는 **무엇으로** 장성하였습니까(24절)?
2.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좋아했습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였나요(24절)?
4. 모세의 **믿음**은 고난을 **선택하였습니다**. 그의 믿음은 무엇을 **소망**하였기 때문인가요(26절)?
5.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났지요. 27절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정리하기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사실 두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주신, 말씀에서 주로 말하는 '믿음'이 있고, 성도가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려는, 우리가 주로 말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말씀이 말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 기도하며 노력하는 것 같아요. 세상의 낙을 버리고 믿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믿음이지요. 보이는 세상을 두려워하기 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세상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근거가 되는 말씀의 힘을 의지합니다. 아멘!

기도 주기도문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지난 설교 요약 /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 마태복음 7:15-23

2024년도 어느덧 가을 마지막 문턱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오후 5시면 어두 컴컴합니다. 세월이, 썩 화살과 같고 물 흐르듯 지난다는 옛 말이 새삼 더욱 실감이 나네요. 시간의 흐름에 점점 더 익숙하게 살만한 때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정말이지 남는 건 그것 뿐입니다. 이러한 고백과 권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요한 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 설교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의 비참한 결과를 이야기하지요.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합니다. 그 열매로 인하여 주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의 제자의 삶은 사실 그의 말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열매는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 결국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열매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사랑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행해지는 것이 아니지요. 인격이고 성품입니다. 마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선행은 베풀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행함은 바로 이 열매, 사랑이 자리하는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 가 증거하는 예수님의 열매에 관한 설교에서는 특별한 것이 하나 있어요.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는 하나, 잘못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무서운 이야기가 되지요. 마태가 증거하는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의 분별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을 경시해도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말씀을 오해해도 나쁜 열매를 맺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말씀의 주인이 '나' 자신이 되면 더욱 위험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선과 악' 혹은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좋은 열매를 당연히 맺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구원을 시작하는 것도, 구원을 사는 것도, 구원을 이루는 것도, 모든 것이 말씀만이 가능하게 합니다. 그 말씀에 뿌리를 박아야 옳은 세움이 있으며 건강한 감사가 충만합니다. 아멘!

